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선구자

더 던 매거진

2025년 1월

목차

새벽의 하이라이트 2

하나님의 미래 의로운 행정 2

국제 성경 공부 30

겸손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 30

주님의 위엄 35

자비의 신 40

영원한 왕국 45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미래 의로운 행정

보세요, 의로운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왕자들이 그 밑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이사야 32:1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건물 계단에서 열립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지도자로 선출될 것입니다. 2016년에 당선되었지만 2020년에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패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간에 한 번 패배한 뒤 두 번 연임에 성공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다른 사례는 19세기 후반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선거 주기

최근 완료된 선거 주기는 상황과 사건 면에서 가장 이례적인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2022년 11월 연임 출마를 발표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5개월 후인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임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두 후보 모두 백악관에서 연임 캠페인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2023년 남은 기간과 2024년까지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습니다. 각자의 재임 기간 동안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편, 상대방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했는데, 이는 국가와 세계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정신력과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발전한 두 번째 특이한 캠페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캠페인이 2024년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81세, 현재 82세인 그의 나이( )를 우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언론이나 대중과 대화할 때 여러 차례 실수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 27일, 바이든과 트럼프가 첫 번째 텔레비전 선거 토론회를 가졌을 때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양당의 거의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실력이 매우 약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7월 21일, 바이든은 두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후임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불과 15일 후인 8월 5일,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던 대의원들의 대면 투표가 아닌 가상 투표를 통해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암살 시도가 발생했고, 그 중 첫 번째 시도로 인해 오른쪽 귀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세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는 용의자가 자신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저지당했습니다. 이 두 번의 암살 시도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후 해리스 후보도 확고한 지지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선 캠페인이 막바지 두 달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선거 전 여론조사는 매우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9월 10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캠페인 기간 중 처음이자 유일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활약에 힘입어 여론조사 수치는 몇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는 다시 팽팽해졌고, 11월에 접어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선거

11월 5일, 대망의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소에 나섰습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 곧 동부에서 시작하여 서부로 이동하면서 각 주에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당일 밤이 지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고 다음 날 아침 대부분의 뉴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승자, 즉 새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은 표를 집계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는 50개 주 중 31개 주에서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카말라 해리스는 19개 주에서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계에서 트럼프는 250만 표 미만의 차이로 대중 투표에서도 승리하여 사상 최초로 7,600만 표 이상을 획득한 공화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어떻게 될까요? 새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에 부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질문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 대부분의 공약은 당파적 정치에 의해 폐기되거나 희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혼란과 고난의 시대, 즉 "국가가 생겨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큰 고뇌의 시기"로 지적하는 많은 예언이 담긴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니엘 12:1, 마태복음 24:21).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주로 '누가'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내놓은 정책에 개인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에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첫 부모가 죄에 빠진 이래 인류를 괴롭혀온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민족,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4). 이는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듯이 사람이나 여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님이시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적 새 행정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새로운 행정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역시 '선거', 더 정확하게는 '선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가리켜 "내가 힘을 주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 내 영을 불어넣었다. 그는 열방에 정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야 42:1).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는 오순절 이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 일을 행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10

신약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여러분은 부드러운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12; 로마서 8:33).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선택받았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3:1, 베드로전서 1:2). 예수님을 통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하실 때 선택의 과정을 완성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3:27

이로써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가족에게 축복이 될 새 행정부의 역사는 "의의 해가 그의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를" 때 일어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2). 회복되고 완전한 지구에서 순종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새로운 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인류 가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속성인 사랑, 자비, 정의, 지혜, 권능에 기초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관리의 의미

관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관리의 행위 또는 과정, 집행 업무의 수행, 공적 업무의 집행, 관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동사 형태인 '관리하다'는 "관리 또는 감독하다, 분배 또는 분배하다, 사역하다, 관리 또는 집행하다"로 정의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새로운 행정부는 '택함받은 자'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위해 현재의 삶에서 적절히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행동과 관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도록 하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므로 행정과 관리자에 대한 성경적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두 번 등장하며, 사역 또는 봉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디아코니아"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5, 고린도후서 9:12). 고린도후서 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동사 형태인 administer는 사역 또는 봉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디아코네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어 단어 집사( )는 이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역하거나 봉사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봉사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45

많은 관리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섬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봉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봉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는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봉사에 사용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서 1:20, 고린도전서 12:12, 25, 27).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관리 업무에서 각자의 역할을 훈련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불완전함, 결점, 약점을 상쇄하고

보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니, ...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29,30). 이 연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하는 특권과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요크펠로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3-4에서 "나의 진정한 동역자인 여러분에게 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십시오."라는 말로 생각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인 우리는 모두 사랑과 교제라는 하나의 유대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형제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형제들에 대한 신뢰와 동정심을 갖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류의 세계가 받게 될 훈련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통치 아래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거 과정 자금 조달

오늘날의 선거 과정에서는 새로운 행정부를 위한 캠페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력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자질, 그리고 종종 야당의 결점과 약점을 알리기 위해 광고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믿기 어렵겠지만 최근 마무리된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총 159억 달러( )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정의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거 과정은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마태복음 19:23

반면에 바울은 자신과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해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요를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10).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사람들을 소망, 믿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의 다양한 측면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눔의 사역을 통해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12). 사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들과 모든 믿는 자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13절).

희생의 필요성

새롭고 의로운 왕국 통치를 위한 그리스도인 훈련의 또 다른 부분에는 진리와 의를 위해 봉사하는 희생(

또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를 특권으로 여기지만, 세상은 희생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희생은 광신자라는 느낌을 주며, 실제로 많은 광신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매일, 매 시간, 매 경험마다, 주어진 모든 기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작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소모할 것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상의 길을 끝낼 때까지 모든 것을 소모하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고난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12). 또한 "승리한 자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21).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천국의 지분을 부여받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특권입니까? (로마서 2:7, 요한계시록 2:10).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필요한 모든 것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8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들에 전념하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에 걸친 섬김과 봉사,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의 진척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너의 일에 전념해라." (디모데전서 4:15). 헌금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개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참된 경건은 그 자체가 큰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6). 경건은 믿음, 미덕, 지식, 절제(자제), 인내, 형제간의 친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함께 기독교 사다리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1:4-8

이러한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고 진심이어야 하며 봉사와 입소문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를 기쁘시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우리를 대변합니다. (시편 19:14). 이 사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료 형제들을 향한 것이며, 세상과 심지어 원수를 향한 자비로운 사랑을 동반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서 여러분을 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커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충만한 생명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17-19

기쁜 소식 알리기

이 미래 행정을 위한 훈련의 또 다른 측면은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14).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의 일부를 인용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구해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내지 않고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13-15

예수님의 능력

왕국 행정이 현실이 될 때 이렇게 훈련받은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회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으로 그 성공을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의 통치자이며, 사람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거의 20세기 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정적들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7-11).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8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지구의 백성들을 신적으로 다스리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정부에는 오순절 이후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어간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 )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묘사하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신성한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6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로운 사회 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벧후 3:13). 거기에는 의로운 아벨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 될 지난 시대의 부활한 고대 가치 있는 사람들이 인간 대표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온 땅의 왕자"로서 새 왕국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실제로 해방시키기 위해 기능할 준비가 되기 직전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시편 45:16, 이사야 32:1, 히브리서 11:1-40).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신성한 기적의 능력이 민족과 열방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즉 정부에 속한 이 고대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직접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전심으로 그가 백성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의로운 원칙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 원칙은 얼마나 멋진가요!

예수님은 그 신성한 정부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의 다양한 상충 요소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달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파 정치"나 "로비"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귀로 들은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3). 지구의 새로운 왕으로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택함 받은 자'를 통해 사람들이 공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것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땅의 온유한 자를 책망하시리로다." (4절). 이 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인류의 정당한 욕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모두가 수혜자

그러면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대변할 누군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왕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에게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해줄 것이며, 그들을 변호할 사람이 없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는 약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2:12-14

이 시편 1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절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위대하고 강력한 자들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도 이 새로운 왕의 덕목과 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부자를 애지중지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높이고 부자를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효과를 묘사하는 상징 중 하나는 계곡이 높아지고 언덕이 낮아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40:4; 누가복음 3:5). 이는 땅의 모든 풍요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다"(사도행전 17:26)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작이나 영주도 없고, 소작농이나 빈민도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정부가 백성에게 건강과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프고

무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33:24).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적들이 그를 죽이도록 허락하신 이유이며,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어 죽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권이 죽어가는 종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하는 종족을 다스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성한 마련의 일부였습니다. (행 3:20 및 21, 고린도전서 15:22). 따라서 인류를 죽음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죽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기록한 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세상에 주신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5-6

예수님은 초림 때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셨고, 재림 때 이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가 증거되거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이 조항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정부'의 법에 순종하면 '그의 어깨 위에' 있게 될 그 '정부'의 법에 순종하면 죽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그들은 완전한 존재로 회복되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의와 축복과 생명이 가득한 이 미래의 정부를 얼마나 기대하며 바라보는지!

국제 성경 공부
1월 5일 강의

겸손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

핵심 구절: "주님, 주님은 힘없는 자들의 소망을 아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17

선택한 성구:
시편 10:12-18

시편에서 1월의 핵심 구절을 모두 가져와서 이 2025 국제 성경 공부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어 축복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신 여호와에 대한 지혜, 위로, 위로, 격려, 헌신, 진심 어린 찬양이 담긴 풍부한 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겸손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핵심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 정의입니다." 18절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고아와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땅의 사람'( )은 더 이상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공과 13절은 이 압제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에서 부패와 죽음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8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마음속으로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동은 악합니다." (시편 53:1). 악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사람으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0:12-16; 사도행전 17:30 및 31

오늘 공과 18절에 나오는 "땅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제한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는 것의 이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천은 이러한 지상의 본능과 싸우고 하늘의 마음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훈계를 따라 진정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방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질하는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마십시오. 나방과 녹이 파괴하지 못하고 도둑이 침입하여 도둑질하지 않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십시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의 소망도 거기 있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6:19-21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 손을 씻으십시오. 당신의 충성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뉘어져 있으므로 마음을 정결하게하십시오. ... 웃음 대신 슬픔이 있고 기쁨 대신 우울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6-10). 베드로는 야고보서의 말미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라고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5:6 및 7).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때 여러분의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엄

핵심 구절: "주님은 왕이시다! 그는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 참으로 주님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고 힘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세상은 굳건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93:1

선택한 성구:
시편 93:1-5

이 수업은 훌륭한 명상을 위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특징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살펴볼 때, 어떤 통찰은 고상하지만 어떤 통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큰 육체적 존재를 구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간과 똑같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타락한 인류에게서 명백히 드러나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허영심, 자의성, 잔인함, 무감각함 및 기타 잘못된 속성이 그에게 덧씌워졌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한 가지 증거는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처럼 일시적으로 죄와 죽음을 허용하는 것처럼 어떤 영역에서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행사를 보류하고 있지만, 그분의 통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물리 법칙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조차도 복잡한 힘과 상호 작용의 법칙에 의해 규제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은 그분의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계속 말씀하시고 밤마다 밤마다 그분을 알리십니다." (시편 19:1-3). 유리한 위치에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우리 은하계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은 우리를 매혹하고 영감을 줍니다. 웅장한 산, 광활한 바다, 열매 맺은 평원, 영광스러운 숲이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은 매일 밤낮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류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 - 신은 실재합니다!

"그는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름다움을 볼 때 그것을 "장엄하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악에 대한 위대한 도덕적 승리는 장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엄함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고상한 생각과 감정으로 고무시킵니다. 하나님은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를 묵상하면 그분의 인격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8).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위엄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최고의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위대하십니다. 누가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장엄한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리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사람은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누가복음 18:18-19). 우리가 선하다고 인식하는 모든 것의 전형이신 예수님은 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그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분은 겁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도전을 받지 않으십니다. 날이 갈수록 여호와의 위엄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신

핵심 구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시편 103:8

선택한 성구:
시편 103:1-14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 비뚤어진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복수심에 불타며 인간 가족에게 적대적이고 판단이 빠르고 처벌이 빠르다고 상상합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없애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치유의 향유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이 시편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환희에 찬 어조,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가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는 나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부드러운 자비로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그는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네!" 1-5절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진실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원한을 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영원히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은 땅 위의 하늘 높이만큼이나 크십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9-12절

사도 바울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제가 오게 되면 가장 큰 기쁨을 주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괴로운

마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4). 우리의 창조주는 "자비의 아버지"로 인정받습니다. 복수의 "자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은 여러 가지 색조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식별됩니다. 그분께 삶을 바친 사람들은 그분의 다양한 자비와 깊은 위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아마도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이라는 큰 죄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고뇌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긍휼로 제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죄책감에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제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저의 반역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며, 나를 향한 당신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1-4절

독자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슷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친절하듯이 주님도 자신을 공경하는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고,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분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선하심이 만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시편 103:13-18

영원한 왕국

핵심 구절: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모든 세대를 다스리십니다."
시편 145:13

선택한 성구:
시편 145:10-21

우리의 핵심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인간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된다는 성경의 주장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삶은 짧기 때문에 영원의 진정한 범위를 온전히 분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의 광대함에 전적으로 편안해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영원에 사는 높고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57:15

시편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주님, 모든 세대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이 땅과 세상을 낳기 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1-2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과 혼란이 존재할까요? 왜 전쟁은 계속되는가?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리고 죽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죄가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지혜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셨는지! 나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았으나 모두 무의미하고 바람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1:13-14).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우신 짐"입니다. 인간은 죄의 영향을 경험하면서 선과 악을 알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22). 때가 되면 창조주께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왕국에서 인류의 재앙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은 허황된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행위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충실한 백성이 당신을 찬송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권능을 말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의 강력한 행위와 주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알게 합니다... 내 입이 주님을 찬양하며 말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145:10-12-21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는 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평화의 위대함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을 다스리며 그때부터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왕국을 세우고 지킬 것입니다." 이사야 9:6-7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9-10).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